

‘일본불매에 코로나19까지’...겉악재 항공업계에 긴급수혈

용자·착륙료 감면·취항지 신설 등 전방위 대책 내놓아

김현미 장관 “항공산업 위기 딛고 도약도록 적극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업계를 위해 긴급자금 300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는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항공사 CEO 간담회를 가진 후 후속대책이다.

항공업계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불매 운동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발생해 주 54회였던

한-중 노선의 운항 횟수가 약 77%(126회)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여객 감소는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 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제재 이후 중국과 동남아에 주력했던 저비용항공(LCC)은 항공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서 일부 항공기 운항 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긴급 피해 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쟁력 강화 방안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을 통해 ‘긴급 피해지원’으로 매출 급감과 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최대 3000억원의 용자를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은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인 한-중 노선 외 여행자체 지역이나 여객 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최대 3개월간 공항 시설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상반기 중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2개월간 항공기의 착륙료를 10% 감면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사용료 감면기한 역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과징금 납부 유예,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준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파리·헝가리·포르투갈 등 신규 및 증편 취항지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하기로 했다. 장거리(파리·부다페스트·카이로·리스본)와 중거리(뉴델리·뮌

바이·시드니·멜버른·비슈케크), 단거리(마닐라·베이징·팔라우·취닝·파세) 등이다.

더불어 민간합동 항공시장 개척 지원단을 파견하고 해외 항공 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를 지원한다. 항공사의 단항·운휴 등에 의한 대체 노선 개설 시에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노선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항공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항 슬롯 확대와 항공기 리스 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수요의 조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 재개할 경우,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 감면을 검토 중이다. 시간당 65회로 포화상태인 인천

공항의 현재 슬롯을 올해 중 70회로 증대해 항공편의 총 규모 자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리스 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 지원에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하락을 경영평가 시 감안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 수요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며 “항공산업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도록 대책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예쁜 화장품 같아, 애플 뛰어넘는 감성 저격”...여심 사로잡은 ‘갤Z플립’

“외관 치장, 쿠션팩트와 비교”...갤Z플립 홍보대사 자처한 누리꾼들



‘갤럭시Z플립’ 미러퍼플 색상을 스티커로 직접 꾸민 누리꾼 (국내 커뮤니티 예쁜코리아 갈무리)

삼성전자의 두 번째 접이식(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이 국내·외 시장에서 ‘인핀’ 행진을 기록한 가운데 전 세계 2030세대와 여성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는 갤럭시Z플립 이용 후기를 전하는 열기로 가득하다. 누리꾼들은 갤럭시Z플립을 ‘쿠션팩트폰’, ‘접는인싸폰’으로 소개하며 다양한 후기를 쏟아내고 있다.

갤럭시Z플립은 접힌 상태로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가로 7.3cm, 세로 8.7cm의 크기다. 무게는 183g이다. 마치 사각형의 ‘팩트 화장품’ 같은 모양이다.

업계는 “갤럭시Z플립은 가볍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디자인과 전

구션팩트와 갤럭시Z플립을 비교한 후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뷰티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잇쟁’ 씨는 갤럭시Z플립 구매 후기영상에서 “미러퍼플 홀로그래프 디자인이 영롱하고 접으면 쿠션팩트처럼 느껴진다”며 “갤럭시Z플립은 예쁜 화장품 같다”고 평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Z플립은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랑콤’ 파우더 콤팩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미국 IT 전문매체 벤처비트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1월 업계 한 관계자를 만나 ‘갤럭시Z플립은 랑콤의 메이크업 콤팩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편리한 ‘셀카촬영’ 기능도 강점이다. 유튜브 잇쟁씨는 “갤럭시Z플립은 셀카를 찍을 때 남에게 휴대전화를 맡기지 않아도 스스로 각도를 맞추고 셀카를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셀카봉 리모컨이 필요 없이 세워두기만 하면 되고, 브이표시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등의 손짓만 보여도 사진이 찍히는 것에 반해 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갤럭시Z플립은 원하는 각도로 고정해 이용할 수 있는 ‘프리스탑’ 기능이 적용됐다. 이에 이용자는 약 70도~130도의 각도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고정할 수 있다. 평평한 액세서리 상품권을 내놓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스탑 기능으로 감각적인 로앵글 셀카를 찍을 수 있고, 어찌던 당신만의 셀카 각도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며 촬영기기로써 갤럭시Z플립의 강점을 강력하게 어필했다.

이 밖에도 갤럭시Z플립은 화면을 상하 2개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모드’를 지원한다. 반을 접었을 때 상단은 보는 영역, 하단은 컨트롤 영역으로 나뉘는 것. 현재 이 기능이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스카메라 △영상 통화 △이미지 △AOD(Always On Display) 4개다.

삼성전자는 2030세대와 여성 고객을 저격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까지 갤럭시Z플립을 구매·개통한 고객에게 국내 가장 브랜드 ‘파인드카푸어’ 클러치와 휴대전화 케이스를 증정한다. 갤럭시Z플립의 타겟이 명확해지는 부분이다.

국내 디자인업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인드카푸어’ 제품을 이벤트로 제공한다는 것부터가 2030세대와 여성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플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꾸미기 위해 쉽게 비용을 지출하는 이 타겟층을 저격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액세서리 상품권을 내놓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4세대 쏘렌토 강인함에 섬세함 더했다

가이자동차는 4세대 ‘쏘렌토’ 외부와 내부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형 쏘렌토는 다음달 중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가이차는 차급과 차종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카라이프를 만드는 ‘보더리스 SUV(Borderless SUV)’를 목표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신형 쏘렌토는 이전 모델들이 보여준 쏘렌토만의 강인한 디자인 헤리티지와 SUV의 사용성을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 세단이 가진 세련되고 섬세한 이미지를 함께 담고 있다.

가이차 관계자는 “신형 쏘렌토의 디자인 콘셉트는 ‘보더리스 제스처(Borderless Gesture, 경계를 넘는 시도로 완성된 디자인)”라며 “기존 SUV 디자인의 전형성을 벗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강인하면서도 정제된 외장 디자인
신형 쏘렌토의 외장 디자인은 ‘정제된 강렬함’을 콘셉트로 구현했다. 1~3세대 쏘렌토의 전통적 디자인 감성인 ‘강인함’, ‘강렬함’, ‘존재감’ 등 가치를 유지하면서 4세대 쏘렌토만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신형 쏘렌토의 전면부에는 진화한 ‘타이거 노즈’가 자리잡았다. 그릴과 헤드램프의 디테일을 완성한 ‘크리스탈 플레이크’ 디자인은 얼음과 보석의 결정을 모티브로 전면부의 입체적 조형미를 극대화했다.

◇직관적이며 고급스러운 내장 디자인
4세대 쏘렌토의 내장은 기능적 감성(Functional Emotions)’을 콘셉트로 직관성을 강화했다. 12.3인치 클러스터(계기반), 10.25인치 AVN(Audio, Video, Navigation) 등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SBW)는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직관성과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세단의 섬세한 느낌도 경험할 수 있다. 신비한 느낌의 조명으로 실내 공간을 꾸미는 ‘크리스탈 라인 무드 라이팅’은 기존 SUV와 차별화된 세련된 감성을 제공하며, 고급 소재 및 가니시 입체 패턴은 실내의 감성 품질을 극대화했다.

가이차 관계자는 “4세대 쏘렌토는 내외장 디자인 혁신을 통해 그동안 중형 SUV에서 느낄 수 없던 새로운 경험과 고품격 감성을 구현했다”며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신형 쏘렌토의 디자인이 고객들을 사로잡는 최고의 매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수확한 참외 출시 17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올해 첫 수확한 성주 참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여름 대표 과일인 참외를 기술발달로 인해 이른 봄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십계명 소개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대부업체가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공적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용자력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차례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미등록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동원F&B, 1등급 녹차와 우유가 만난 ‘보성라떼’ 2종 선보

동원F&B는 보성녹차에 국내산 1등급 원유를 넣어 만든 ‘보성라떼’ 2종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성라떼 2종은 유기농 차잎의 품미와 국내산 1등급 우유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음료다. 보성말차는 녹차잎 중 최고로 차는 첫물 차잎을 갈아 만든 국내 최초 RTD(Ready to Drink) 말차 음료다. 보성홍차는 차잎을 향 아래에 담아 차의 향을 유지하면서 발효하는 자체 방식으로 생산된다. 특히 차잎을 그레들 갈아 담았